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3년 7월 26일(수) 총 5매	
담당부서 시정혁신담당관	담당자	• 규제혁신팀장 김금옥 ☎440-1631 • 담당자 신현규 ☎440-163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관행 깨고 선제 대응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 유상 매각 대상 토지 재발견 등 적극행정 7건 선정 -  
 - 유정복 시장 “적극행정은 시민을 위한 기본 자세임을 명심” 당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의와 이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6명과 우수팀 1개팀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으로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 총 30건(공무원 18명, 팀 12개팀)을 대상으로, ▲시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했다.

심사는 실적검증 및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을 통해 온라인 시민투표, 내부 직원 평가인 실무 심사 등을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공무원 개인 분야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1천억 원 상당 공유

재산 매각부지 확보!’ (박춘곤 사무관), ‘공유재산의 정상화, 공공청사 부지를 장기점유하던 고질 민원을 해결하다’ (정연화 사무관) 등 총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팀으로는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 (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이 최종 선정됐다. 개인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실적 가산점, 포상 휴가 및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우수팀에게는 포상금이 수여된다.

그 중 ‘꺼진불도 다시 보자. 1천억 원 상당 공유재산 매각부지 확보’는 착오로 누락됐던 부지매각 세입 1천억 원을 발굴한 사례다.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나대지를 도로·공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인 인천시와 협의없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무상귀속 승인을 받았으며, 일부 토지가 무상귀속된 상태였다. 박 사무관은 십수 년이 지난 인허가 자료를 찾아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액 1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가 유상 매각 대상임을 입증했다. 현재 해당 부지 대부분은 인천시 소유로 돼 있지만, 박 사무관의 적극행정 노력이 없었다면 자칫 무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팀 분야 우수사례로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은 영종지역 교통복지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공항철도 운임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공항철도 운서역·영종역을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은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어 운임 차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을 개발, 운서역과 영종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실제 운임’과 ‘통합 환승할인제 적용 계산 운임’과의 차액을 지난해 7월부터 환급해 주고 있다.

시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및 이를 통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매년 반기별로 선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내부 추천 외에 시민도 적극행정온(ON) 홈페이지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 포상금, 실적가산점, 특별승급을 비롯해 최고 특별승진까지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적극행정 장려책과 더불어 공무원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공무원은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며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의 발전을 이끌고, 시민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모범이 되는 것이 제일 큰 보람과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이를 명심하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01 꺼진 불도 다시보자!  
**1,000억원 상당 공유재산 매각부지 확보!**
- 02 공유재산의 정상화  
**공공청사 부지 장기 무단점유 민원을 해결하다**
- 03 공무원 제안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방지하다**
- 04 재난현장 골든타임 준수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AI 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다**
- 05 수요자 편의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문서처리 방법을 개선하다**
- 06 절차부터 간편하고 내실있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하다**
- 07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으로  
**통합환승요금제 운임차별을 해소하다**

## 붙임2

##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현황

번호	소 속	성 명	적극행정 우수사례	비고
1	도시계획과	박춘곤	<p><b>꺼진 불도 다시보자 : 1,000억원 상당 공유재산 매각부지 확보</b></p> <p>▶ 2011년 시행사(LH) 행정착오로 무상귀속 대상으로 기승인된 토지를 십수년 전 인허가 서류 검토, 법원 판례 조사,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유상 매각 대상임을 밝혀내 1천억원 상당의 재원 확충 기반 마련</p>	개인
2	사회재난과	정연화	<p><b>공유재산의 정상화, 공공청사 부지를 장기 무단점유하던 고질 민원을 해결하다</b></p> <p>▶ 8년간 수도사업소내 일부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건축물을 설치한 고난도 민원에 대해 끈질긴 경청과 설득, 신뢰 형성, 생계보전책 강구를 통해 원만한 행정대집행을 이끌어 내고 시민 주차공간 확충</p>	"
3	상수도 사업본부	최광우	<p><b>공무원 제안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인천‘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방지하다</b></p> <p>▶ 수계전환시 발생하는 초기 적수를 원수가 유입되는 착수정으로 보내 정수처리 공정을 다시 거치게 하여 수질을 확보한다는 방식에 착안한 비상연계관로 설치</p>	"
4	교통정보 운영과	박장빈	<p><b>재난현장 골든타임 준수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AI 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다</b></p> <p>▶ 응급차량 출동시 실시간 교통흐름, 차량 속도, 거리 등을 계산해 녹색신호를 순차 적용하는 ‘인천형 긴급차량 우선 신호’ 도입 및 경찰과 지자체의 교통종합상황실 합동 운영 추진</p>	"
5	상수도 사업본부	강상욱	<p><b>수요자 편의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문서처리 방법을 개선하다</b></p> <p>▶ 건설사가 ‘행안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통해 착공·준공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업무처리 시간 및 비용 절감</p>	"
6	하수과	염찬우	<p><b>절차부터 간편하고 내실있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하다</b></p> <p>▶ 기존 금고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던 방식에서 지방세외수입 표준시스템(eNIS)을 활용한 부담금 부과·징수 및 카드·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해짐</p>	"
7	교통정책과	교통 운영팀	<p><b>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사업으로 수도권 유일의 통합환승요금제 운임차별을 해소하다</b></p> <p>▶ 수도권통합환승제와 공항철도운임 체계의 이원화로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던 영종주민을 위해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을 개발하여 환승제도 혜택을 받지못한 금액분을 별도 지원</p>	팀